

‘제로금리’ 비과세·액티브펀드에 눈 돌려라

광주은행 자산관리부가 알려주는 달라진 재테크 기상도

안전자산 달러·금 투자 활발...저축보험 예금 대체상품으로 추천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허용치까지 가입...소형 부동산 유리

‘0.5%’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도 유례없는 ‘제로 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국내 금융소비자들도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22일 광주은행 WM(Wealth Management·자산 관리)사업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편된 ‘재테크 기상도’를 제시하고 주목받고 있는 투자방법을 소개했다.

◇낮은 금리수익·여유돈은 증시로=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만에 또 내리면서 은행들의 조달금리(시장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은행의 대표 수신상품인 정기예금 금리만 봐도,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지난 2주간 0.3~0.4%포인트씩 일제히 낮췄다.

자산 전문가들은 채권 투자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단언한다.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채권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할 때 낮은 금리수익 외에 매매익·평가익 등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지난 3월 1500선이 무너졌던 주식

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등이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하반기에도 주식은 강세가 예상된다.

회복 속도가 2분기만큼 빠르지는 않더라도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광주은행 WM부는 4차산업혁명과 헬스케어 등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를 추천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이 가능한 선진국과 미국을 유망 국가로 꼽았고 원자재 가격 불안과 금융환경, 재정여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빼고 신흥국 증시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면 저축보험을 예금 대체상품으로 들 수 있다.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월 적립식 150만원, 일시납 1억원까지 10년 이상 유지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세(稅)테크로 펀테크·달러·금 인기 지속=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으나 개인형퇴직연금은 주부·학생 등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불입 도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연금수령 때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측은 5년 이상 납입기간을 유지하고 55세가 지나야 연금혜택을 볼 수 있기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제도도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로 채워 가입할 것을 권했다.

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위험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때에도 금값은 꾸준히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금 투자를 염두한다면 단기적 수익목적 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향후 경제가 회복하면 금 가치가 함께 상승할지라도 현재 금 가격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의 강세도 여전하다. 환율이 내려갈 때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달러예금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은행 측은 경기가 반등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달러 유동성이 서서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달러강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인하=집값상승·투자 핵심은 ‘비대면’=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상업용 부동산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등 외적인 변수의 영향에 민감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광주은행 측은 임대용 부동산은 상가보다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용 부동산이나 소형 사무실이 더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광주은행 WM부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것도 투자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 시대 핵심어로 꼽히는 비대면(언택트)은 소비, 여가, 교육 등 전방위로 스며들고 있다”며 “전통적인 투자방법으로 따지면 제로금리 시대 세후수익률이 중요해져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유망한 투자처이므로 시장 주도업종에 투자하는 액티브펀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26.73 (-14.59)	↑ 금리(국고채 3년) 0.846 (+0.002)
↑ 코스닥 751.64 (+9.61)	↑ 환율(USD) 1215.80 (+6.20)

광주은행, 지역 조선업체 살리기 나선다



송중욱(왼쪽 세번째) 행장이 22일 해남 대한조선주에서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정대성(왼쪽 두번째) 대표와 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대한조선에 422억 대출 8월까지 2차례 걸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2일 해남 조선업체 대한조선주에 422억원 운영자금을 대출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1차 대출 규모는 212억원이며, 오는 8월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대출에서는 대한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급보증했다.

대출자금은 선박 20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원재로 구입 등에 쓰인다. 상황금은 선박 인수대금으로 마련된다.

송 행장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수혈함으로써 기업운영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전남·광주 대표은행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지역 조선업 부활과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7년 9월 설립된 대한조선은 해남에 본사를 두고 국내외 중형탱커선 등 선박을 수주·건조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중형탱커선 113척을 수주, 93척을 인도하며 관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전남 기업대출 한달 새 1조5000억 증가

증가폭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기업대출금이 전달보다 1조5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대출인 ‘코로나 대출’로 운전자금을 충당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2일 발표한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기업대출금은 전달과 비교해 예금은행은 8829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6178억원 등 총 1조5007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총 잔액은 63조 4400억원이다.

이 증가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예금은행 2007년, 비은행 2013년)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올해 2월 3557억원, 3월 4042억원, 4월 8829억원으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금 증가 폭도 2월 1759억원, 3월 3402억원, 4월 6178억원 등으로 오르고 있다.

지역 가계대출도 두 달 연속 증가 추세다. 광주·전남 4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전달 대비 증가액은 광주 2370억원, 전남 1809억원 등 417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광주 1676억원, 전남 1183억원 등 2859억원으로 두 달째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 감각적 디자인 입힌 ‘올 인덕션’ 신제품 출시

159만원~169만원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색상을 적용한 전기레인지 ‘올 인덕션’ 신제품을 22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상판과 조작부에 서로 다른 색상·재질이 적용된 디자인과 비스포크 색상까지 세련된 느낌을 더한 것이 특징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상판은 화이트 색상이 적용됐고, 조작부는 클린 화이트와 클린 그레이, 클린 핑크 등 3가지 색상이 도입됐다.

3개 화구 모두 고효율 부스터를 적용해 많은 양의 음식도 빠른 시간 내 가열할 수 있고, 가장 큰 화구는 부스터 기능을 사용하면 출력이 최대 3000W다.

삼성 올 인덕션은 빌트인 타입과 프리스탠딩 타입으로 출시돼 주방 환경에 맞게 설치 가능하고, 별도의 전기 공사 없이 플러그만 꽂아 사용할 수 있어 설치와 이동이 용이하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159만~169만원 선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22일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프리미엄하우스에서 삼성 전기레인지 ‘올 인덕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